
서 평

이오시프 김의 <소비에트 고려극장>

|서 평|

이오시프 김의 <소비에트 고려극장>

박영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2017년은 고려인 강제이주 80년을 맞는 해였다. 주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민족인 ‘고려인’은 1890년대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1937년에는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소련 붕괴 이후에는 연해주 재정착과 모국 귀환 등에 이르는 대 이주를 경험한 바 있다. 그 가운데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민족을 결속시키고 전통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던 구심체가 바로 ‘고려극장’이었다.

하지만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하기 이전, 고려극장은 이미 일제 통치하의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932년에 설립되어 그 모태가 형성되었다.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고려극장은 이것이 구소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첫 공연단체이자 해외극장이라는 역사적 의미 역시 지니고 있다. 1932년부터 지금까지 85년의 기간 동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250여편의 연극과 콘서트를 무대에서 상연해왔고 50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그것을 관람했다. 한마디로 고려극장은 한민족 질곡의 역사를 온전히 품어 안은 공간인 셈이었다. 고려극장에 내재된 민족사적 의미는 이곳이 단순히 즐거움을 주기 위한 ‘놀이’로서의 연극이 아니라,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던 지사(志士)들의 삶이나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홍부전> 같은 우리 고전(古典)들을 기억하며 민족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요체였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극장은 역사적 의의뿐만 아니라 예술적·미학적 의의도 지닌다. 창설 초기부터 고려극장은 고려인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체험을 교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해왔다. 이런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유대감이 훨씬 깊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고려극장은 모국어 연극과 가무를 통해 고려인 관객들에게 공동체적 공감대를 최고로 심화시키고 이를 최대한 확장시켜줌으로써 재소고려인 사회를 결속시키는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어 디아스포라의 고난을 겪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극장이 해 왔다는 것은 세계 연극사에도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려극장은 고려인 민족문화의 발원지이자 그들의 지난한 삶과 애환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미학의 산실(産室)이었던 것이다.



<초판본 “소비에트 고려극장”의 책표지>

이런 시대적 인식속에서 36년 전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 출판되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알려지지 못한 이오시프 표도로비치 김 (1935-1997)의 <소비에트 고려극장>(1982)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해주에서 출생한 이오시프 김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극장예술대학을 졸업하고 1961년에 고려극장에 입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배우로

시작하여 그 후 연출가가 되었으며, 극작가로서의 재능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희극>(1971), <전환>(1974), <어머니가 신랑감을 찾는다>(1980) 등의 희곡작품을 집필했으며, 1989년에는 <심청전>을 각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위업은 고려극장 창립 50주년이 되던 해인 1982년에 맞추어 고려극장의 역사와 배우, 주요 공연내용을 정리한 <소비에트 고려극장>을 편찬한 것이었다.

이오시프 김은 당시 고려극장 반세기 역사에서 시대적·예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소개와 그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고려극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족 유산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이며 자랑할 만한 전문적인 문화 발원지로 변모했다. 고려극장의 무대에서는 카자흐, 서양, 러시아 극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전후시기에 고려극장은 다른 민족들의 고전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고려인 관객들을 소련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의 문화유산과 접촉시키는 것이 또 다른 극장의 과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고려극장 85년의 공연사에서는 연성용, 태장춘, 한진과 같은 우리 작가들의 희곡들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 몰리에르, 로르카, 카를로 골도니를 비롯한 서양 고전작가들의 작품, 겔만, 자도르노프, 오스트로프스키, 고골리, 체호프와 같은 러시아 작가들, 그리고 무흐타로프, 아우에조프, 무스레포프, 아이트마토프 등 중앙아시아 작가들의 희곡이 상연되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傍證)한다. 고려극장 역사 전반에 대한 이러한 통시적 흐름과 다언어적 접근을 배제한 채, 한글로 집필된 몇몇 희곡작품 연구에만 천착하고 있는 국내 현실은 안타까운 측면이 적지 않다. 때문에 고려극장에서 상연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작품에 대한 국내 소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스토리가 어떤 방식으로 윤색되고 각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오시프 김의 저술은 학술적 가치 역시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에 출판된 이 책이 85년이 넘는 고려극장 예술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확성을 감안할 때 소비에트 시대에 러시아어로 집필된 중앙아시아 희곡 원본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 문화가 습합(習合)되었던 가능성, 연극에 포함되었던 노래와 무용에 대한 이해 역시 향후에는 보충되어야 한다. 고려인들이 다문화권을 경험하며 이질적인 타국문화를 수용하고 변용시켜간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에 대한 일차적 조사와 함께 번역과 각색, 무대상연의 과정과 결과를 고려인 강제이주 80해 행사를 했던 2017년까지 접근조차 못했던 것은 열악한 연구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고려극장이 걸어온 발자취에는 마치 거울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반영되어 있기에, 고려극장의 역사는 구소련 고려인들의 역사이자 새롭게 품어 안아야 할 우리 민족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특히 만리길을 걸어와 한 편의 연극을 보며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걸어온 고난의 길을 추체험하며 동족의 미래를 모색하는데 ‘연극’은 무엇보다 중요한 예술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고려극장에 대한 면밀한 자료정리와 공연예술의 의의 부여 작업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전통의 전범이 될 것이며, 고려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확인시켜 준 예증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고려극장에는 수십년간 공연된 연극대본들이 한 번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기록보관실 지하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앙아시아 땅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민족 예술의 숨결을 연구할 수 있는 그 빛바랜 자료들의 보관 상태가 우수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둔다면 소중한 자료가 훼손되고 유실될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복원 노력과 함께, 지금까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던 분야의 첫 걸음을 뗀다는 의미에서도 이오시프 김의 <소비에트 고려극장>에 대한 기본적인 번역과 출판 작업

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 민족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가는 노정(路程)일 뿐만 아니라, 고려극장의 의의를 한민족 역사를 넘어 근대 유라시아 문화예술사로까지 확장시키는 가교(架橋)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